경주 지진 1년, 불교문화재 복구율 80%

문화재청 복구 현황 및 지진 대책 9월 12일 발표

40곳 피해 중 8곳은 미복구돼
분황사 모전석탑 복구공사 中
염불사지 석탑 등은 안전진단
내진성능 향상 기준 마련 추진

지난 9월 12일로 경주 지진 발생 1년을 맞았다. 당시 불국사 다보탑 등 불교문화재 뿐만 아니라 첨성대와 같은 국보급 문화재들도 피해를 입었다. 지진 발생 1년이 지난 현재 불교문화재(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복구율은 8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은 "1년 전 지진 피해를 입었던 문화재 100건(국가 지정 52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48건) 중 86건에 대한 복구를 마쳤다"고 9월 12일 발표했다.

문화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는 40건으로 복구가 완료된 것은 불국사 다보탑 등 32건이다.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못한 문화재는 8곳으로, 미복구율은 20%로 조사됐다.

동탑 옥개석 서북쪽 모서리가 파손된 경주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보물 제1429호)은 복구공사 설계 중이며, 지붕 기와가 훼손된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제30호)과 탑신석이 이격된 경주 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188호)은 복구공사 중이다.

또한 △옥개석이 이탈된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867호) △석탑 상륜부가 파손된 경주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68호) △상단 탑신부가 박리된 경주 용명리 삼층석탑(보물 제908호) △탑신석이 이완된 경주 남산 염불사지 삼층석탑(사적 제311호) △불두지지석 균열이 확장된 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도유형문화재 제113호)은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재 복구를 마무리하지 못한 문화재들에 대해서도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주 지진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겨진 한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국민들에게 알렸고, 잇달은 문화재 피해는 안전관리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현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토록 했으며, 지진 방재기반을 구축하는 전담조직인 안전방재연구실을 올해 1월 신설했다.

실제 건축문화재를 그대로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 건축문화재의 각종 보존 분석과 구조안전성 실험을 할 수 있는 '건축문화재 안정성 평가 시험연구시설' 도 충북 충주시에 오는 11월까지 완공된다.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직후 통도사에 급파된 문화재청직영사업단이 대웅전을 보수하는 모습.

서울, 경주, 부여 등 5개 역사도시 내 건축문화재에 대한 지진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진위험지도를 오는 2021년까지 구축하고, 목조 · 석조 등의 유형별 내진성능 향상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진 등에 취약한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의 보수 · 보강 시 내진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법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찰 문화재, 민속마을 등 재난 취약 지역의 문화재 소유자 ·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재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민속마을 2개소에 시범 추진했으며, 2019년까지 일반 사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화재 긴급복구 예산도 현재 47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지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조문화재 노후전기시설 교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진에 안전한 문화재 환경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템플스테이 셔틀, 외국인 참가율 높일까

문화사업단, '버스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 이벤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이용 외국인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을 최초 시도했다. 그동안 템플스테이 이용 외국인들의 교통 불편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온 바, 이번 시범운영이 향후 외국인 참가자 증대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은 9월 8일과 1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봉선사 간 왕복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버스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마지막 운행은 8월 22일이다.

'버스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는 한국어에 미숙한 외국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템플스테이를 찾는데 많은 불편이 따른다는 요청에 따라 최초 도입된 시범운영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13일 개최된 2017 템플스테이 학술포럼에서도 외국인 유치 확대 방안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셔틀버스 운영 도입'이 제시된 바 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외국인 참가자 편의 도모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면서 "시범운영에 참여한 봉선사는 10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셔틀버스를 지속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봉선사의 당일형 프로그램과 연계 진행된다. 오전 9시 30분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앞에서 출발해 오후 5시 도착하는 일정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9월 8일 서울-봉선사 간 왕복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버스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했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봉선사는 연꽃을 테마로 '사찰음식 만들기' '연등 만들기' '연근차 마시기' 등 알찬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 참가자들의 수요가 높은 당일 코스에 용이했다는 게 불교문화사업단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 원시림을 특별 개방해 더욱 눈길을 끈다. 이곳은 평소 일반인 출입이 불가하다.

셔틀버스 요금은 별도로 없으며, 이벤트(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템플스테이 참가비 1만원만 내면 셔틀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eng.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02)2031-2063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⑩ 입과 눈, 그리고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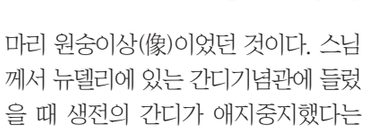
세 마리 원숭이상 선물한 이유

작년 11월 그리스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다. 아테네 시의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 아고라 광장과 파르테논 신전을 본 뒤였다. 관광객들이 파르테논 신전의 거대한 돌기둥과 조각된 문양들을 보고 탄복하는데 나는 좀 무덤덤하게 감상했다. 석질이 무른 대리석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석조물처럼 단단한 화강암이 아니었다. 화순 쌍봉사의 철감선사 부도나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처럼 화강암을 도자기 진흙 주무르듯 했다면 나 역시 감탄했을 것이다. 때마침 그 시간에 광화문 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으므로 동참을 못해 시큰둥한 기분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돌산 산정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와 노상카페와 상점들이 들어선 플라카 지역의 뒷골목에서야 답답한 마음이 가시는 것을 느꼈다. 어느 기념품 가게를 들렀는데 온통 대리석으로 만든 부엉이 조각품뿐이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아테네 시를 상징하는 새가 부엉이라고 말했다. 아테네가 지혜의 여신이므로 부엉이가 상징하는 바도 지혜라고 덧붙였다. 비교적 큰 부엉이 한 마리를 산 뒤 가게를 나서려고 했을 때였다. 가게의 진열대 구석에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세 마리 부엉이상(像)이 있었다. 한 마리는 날개로 입을 가리고 있고, 또 한 마리는 눈을 가리고 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귀를 가리고 있었다.

나는 부엉이상의 의미를 알 것 같았으므로 선뜻 지갑을 열었다. 주인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흥정 없이 샀다. 법정 스님께서 인도를 여행을 하시고 돌아와 내게 선물한 기념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 역시 같은 의미를 띤 세 마리 원숭이상(像)이었던 것이다. 스님께서 뉴델리에 있는 간디기념관에 들렀을 때 생전의 간디가 애지중지했다는 세 마리 원숭이상이었다. 물론 모조품이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기념품이라고 말씀하셨다.


일러스트 · 정윤경

원숭이가 손으로 입을 가린 것은 나쁜 말 하지 말고, 눈을 가린 것은 나쁜 것을 보지 말고, 귀를 가린 것은 나쁜 소리를 듣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셨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자면 입은 좋은 말을 하라고 있고, 눈은 좋은 대상을 보라고 있으며, 귀는 좋은 소리를 들으라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둘 중 하나라고 믿지 않을 수 없다. 오직 복을 발(發)하는 행위이거나 복을 감(減)하는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 중간은 없다고 본다. 인과에 어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이 있을 것인가. 이를 발복(發福)과 복감(福減)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징검다리는 앞에서 말한 입과 눈, 그리고 귀가 아닐까.

법정 스님께서 세 마리 원숭이상을 내게 선물한 뜻도 깊이 헤아려보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지금도 거실 불단 위에 세 마리 원숭이상을 올려놓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성찰하곤 한다.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정 서명운동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정부 및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알렸다.

1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9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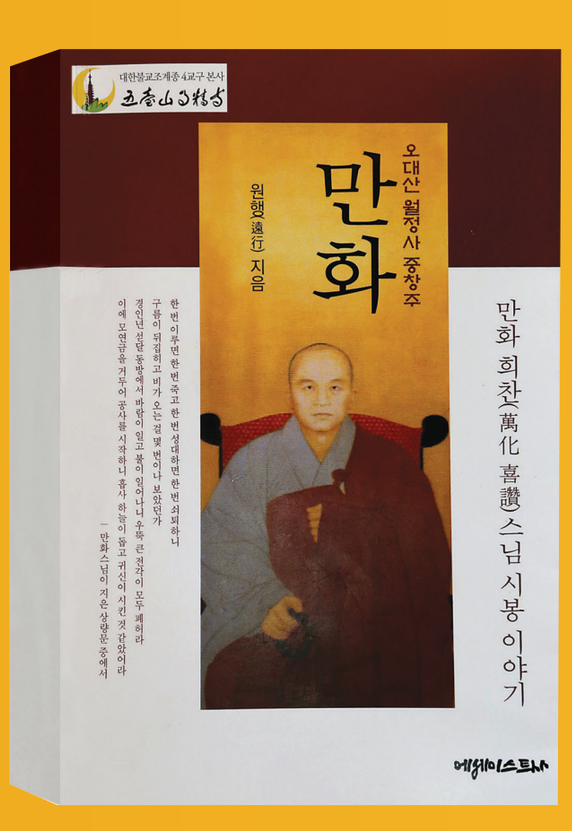
이들은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면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 권고하며 입법이 추진됐으나,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금지법 권고가 있었지만, 17~19대 국회에서도 제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10곳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및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등이 함께한다.

박아름 기자



한국불교의 실천적 선구자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 희찬 스님 시봉이야기

만화

지속가능한 불교의 계승 발전과 만화선풍(萬化禪風)을 말하다

소납은 만화 희찬의 상좌로 은사스님의 행장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은사스님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비구 대처 분규, 불교종단 분규, 월정사 분규, 10.27불교법난 등, 한국불교 현대100년사와 오대산 불교 100년사에서 가장 격동의 시간을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다. 한국전쟁 당시 오대산의 모든 사찰이 국군에 의해 불태워질 때 한암스님을 시봉하며 상원사를 지켜내셨고, 탄허스님이 화엄경 역경 불사를 하실 때 잿더미만 남은 월정사의 가난한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위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도우셨다. 오랜 전통의 한국불교에 위대한 승려가 많았지만, 만화스님처럼 보살 정신과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욕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름을 남긴 이는 많지 않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 이름 없이 산화된 이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불교계에서도 헌신적인 희생과 인욕을 구도로 삼았던 만화스님 같은 분들을 새롭게 조명해야 할 것이다. 모든 존재가치의 평등성 회복이 화엄세계인바, 진즉 그랬어야 했다. 진정한 선은 행선이다. 만화스님은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일 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실천적 선구자로서 명실공히 지속가능한 불교의 계승과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만화선풍(萬化禪風)을 일으키신 분이다.

월정사 부주지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 희찬 스님 시봉이야기
출판법회 안내

- 일시 : 불기 2561(2017)년 9월 2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그랜드앰버서더호텔(장충동) 2층 대연회장
- 문의 : 월정사 033-339-6800

저자 원행 | 474쪽 | 20,000원